

OPINION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아침세평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박병훈

특목브리태니컬발달연구소 대표



우연한 만남이 인연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이런 만남을 필연적 우연이라 한다. 필연적 우연의 만남은 한 사람의 삶이 실타래처럼 풀려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돼 그 사람 속에 깊이 자리잡게 한다.
어느 날 광주경찰청에 불 일이 있어 방문을 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이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대화의 주제는 우리 지역 비행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비행청소년을 위한 마음톡톡 상담이 시작됐다.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요즘 공적사회에서 유행하는 적극 행정의 교과서라 할 만하다.
청소년의 달이다. 청소년들은 늘 우리의 역사현장에서 변화의 주역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항상 밀리는 약자여서는 아니 된다.
이제 부당하게 청소년에게 붙여지는 꼬리표에 저항해야 한다. 학교에 한번 지각했다고 해서 지각대장은 아니지 않나.

청소년들을 관리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기의 시행착오를 마치 그들의 인생 전체를 예견하는 바로미터처럼 취급한다.
청소년이 저지르는 문제행동이 이슈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는 논란이다. 이런 논란은 실효성이 없다.
숲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생각에 다름 아니다. 이런 주장이 논거를 가지려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 비행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 경험적 증거들은 없다.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 이면에는 처벌 만능의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 지극히 단편적이고 근시안적 접근이다.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청소년들에게 나쁜효과만 가져올 뿐이다.
여러 사회적 문제가 그러하듯이 청소년 문제도 그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청소년 비행의 양상과 현상의 면밀한 분석없이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접근으로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 비행에 관한 대책은 응보적 접근에서 벗어나 회복적 선도와 치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처벌보다는 교화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응보적 접근은 청소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은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정작 피해자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대결구도를 만들고 제3자가 관여함으로써 관계의 단절과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비해 회복적 패러다임은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와 공동체구성원이 함께 노력해 피해를 온전히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가해 청소년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기조절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청소년 비행은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에는 물질주의, 노력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는 한탕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등 우리 사회의 병리적 찌꺼기들이 깊이 침착돼 있다.
이 같은 사회 변동에 따라 청소년 비행의 양상도 바뀌고 있다.
가장 많은 청소년 비행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탈비행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음톡톡상담이다.
새로운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패러다임과도 일치하는 타당한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광주경찰청과 특목브리태니컬발달연구소가 협업을 통해 3년 동안 지속해 온 사업이다.
마음톡톡상담은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이 탈비행에 성공했다. 이들은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우울감이나 좌절감 감소, 자존감과 긍정적 정서가 늘어났다.
그리고 비행의 중단과 타인조망능력 및 공감능력의 향상, 대인관계의 개선과 학교적응력 향상이 일어났다.
하루하루가 지극히 고통스러웠던 비행청소년들이 목표를 세워 미래를 꿈꾸게 됐다.
새롭고 창의적인 청소년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이 보편처럼 곳곳부터 피어오르길 바란다.

기고

다시 들려오는 아이 울음, 복구가 품는 희망

고경희

광주 복구 청년미래정책관



작년 겨울,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연말 어느 날 거리에서 울러 퍼지는 익숙한 캐럴 음악에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평소 같았으면 흥얼거리며 지나쳤을 음악이었지만 그날따라 문득 떠오른 생각은 이랬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명이 채 안 되는데 한국을 담당하는 산타 할아버지는 요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진 않을까?' 싶지는 상상이었지만 이내 웃음 대신 씁쓸함이 밀려왔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변함없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0.72명) 대비 0.03명 증가한 수치로 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최하위이며 바로 위인 스페인(1.16명)과 비교하더라도 큰 격차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우려의 대상이다. 지난 3월 OECD는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다룬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 중 58%가 65세 이

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생산성 저하와 경제 정체, 복지 제정의 압박 등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보며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작년과 비교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에 반등을 보였다는 점을 희망의 신호로 인식하며 올해를 복구가 기본사회로 대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아이 낳아 기르기가 좋은 도시로의 변화'를 강조한 민선 8기 신년사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를 찾았다.
이에 복구는 행정부와 의회 및 주민들이 힘을 모아 체감도 높은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작년 4월 순혜진 복구의회의 의원의 발의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광주 최초로 제정해 추진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다.
특히 목표 모금액 6000만원이 단 2개월 만에 모인 점은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트렌트 기반 위에 건물이 세워지듯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복구의 저출생 극복 정책이 아이 울음소리를 더욱 크게 키우는 화성기가 되어 우리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번지로 자리매김할 기대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출생률의 숫자 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드는 양육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함께 인식했으면 한다.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5만원 상당의 콜택시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며 지역 콜택시 업체인 빛고을콜택시와 협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는 매 순간이 중요한 만큼 긴급한 상황에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여기에 더해 바쁜 부모를 대신해 병원에 동행하는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복구의 4~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행지원사가 병원 진료, 약 처방, 귀가까지 함께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편의 제공을 넘어 부모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 동행 서비스 이후 귀가할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일시적인 병상 돌봄을 제공해주는 '아픈 아이 케어 뽀뽀뽀 돌봄센터 조성 사업'이 2024년 고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돼 빈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목표 모금액 6000만원이 단 2개월 만에 모인 점은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트렌트 기반 위에 건물이 세워지듯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복구의 저출생 극복 정책이 아이 울음소리를 더욱 크게 키우는 화성기가 되어 우리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번지로 자리매김할 기대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출생률의 숫자 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드는 양육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함께 인식했으면 한다.

취재수첩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올해가 적기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오월이 찾아왔다.
이맘때면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위해 몸을 던져가며 항쟁을 펼친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45주년이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쿠테타와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이들은 역사의 오점을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고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해는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매년 찾아오는 오월이지만 2025년의 오월은 의미가 남다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시도했던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80년 5·18을 다시금 상기시켰고, 거리를 나선 국민들은 오월정신으로 하나 돼 이를 막아냈다.
그 날을 기억하며 올해 5·18기념행사 표어(슬로건)는 '아이, 오월, 다시 만난 오월'로 오월은 용기와 연대의 상징이자 대동의 표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의 연원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올해 행사도 1980년 대동세상을 뛰어넘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과 표상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대추제로 기념행사로 꾸며진다.
80년 5월의 광주는 2025년 대한민국에 여전히 살아 있다.
5·18정신은 세계 민주주의의 나침반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나는 영혼이다.
또 5·18정신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는 가치다.
대다수 나라가 헌법 전문에 헌법 정신과 국가의 핵심 가치를 싣고 있는 만큼 우리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해 국가의 핵심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
45주년을 맞이한 올해 5·18 광주의 정신이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명문화해야 한다.

사설

광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속도 내길

그동안 예산 축소와 정부 무관심속에 수년째 방치됐던 광주 상무지구를 산업·주거·문화를 집약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새국면을 맞이했다. 국회가 최근 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을 하고 있고 정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나서는데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 범 정부차원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을 말한다.
즉,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 대도시 도심에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 유출을 막는 등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광주 상무지구 일대(85만㎡)를 선정했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지방 대도시 4곳도 포함됐다.
이들 도시에는 총 사업비 1조5790억원을 투입, 스마트 첨단 특화, 의료·디지털 융합, 연구개발(R&D) 혁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관련 특별법 입법 지연과 예산 지원 부족,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지연된 정부 예산은 1곳당 13억원 규모에 그쳐 별 다른 절차를 밟지 못했다.
표류하던 이 사업은 최근 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이 곳 입주 기업들의 세금 감면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회의 지원 근거가 담긴 법률 개정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또 5대 광역시 지역구 의원과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등 정부 부처 차관, 대학 교수,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도 최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는 등 적극 가세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1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옛 광주적십자병원' 활용계획 마련해야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자 5·18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개방된다.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5·18사적 제11호인 이 곳을 오는 3월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14년 폐쇄된 지 11년 만이다.
이번 개방은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5·18 사적지라는 역사성을 시민과 방문객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개방 구간의 안전과 관람 효율을 고려해 전면 주차장과 응급실, 1층 복도, 중앙현관, 뒷마당 등으로 한정하며,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후 1시30분 이후에는 5·18기념재단의 '오월해설사'가 상주해 관람객들에게 무료 해설을 제공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 기간 5·18 당시 현할 장면과 부상자 치료 모습을 담은 사진, 병원의 역사, 관계자 증언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선보이는 적십자병원 개방 기념 전시회도 연다.
특히 이곳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지 중 하나인 점을 부각, 이번 개방행사를 광주관광공사의 특화관광상품인 '소년의 길'과 5·18기념재단의 '오월길'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키로 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80년 5월 당시 부상자 치료와 자발적인 헌혈이 이어졌던 공동체 정신이 깃든 역사적인 장소다. 1965년 개원한 이 병원은 1996년부터 병원 터와 건물을 소유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4년 폐쇄됐다. 이에 광주시는 사적지 보존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90억원을 들여 사들였고 매입해 관리하며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보존 주체인 오월 단체들의 이를 둘러싼 내용으로 수년째 별다른 진척이 없다 최근 보존범위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중·장기 활용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방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활용 계획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광주시는 단체·전문가·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필요한 국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Table with 3 columns: Department (e.g., 편집장, 총무, 기획), Name (e.g., 전용준, 김상훈, 최현수), and Contact Info (Phone, Email).